

정년 넘긴 근로자 계속 고용하면 분기당 90만 원 인센티브

2020년부터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
거나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계속 고용
하는 기업에 분기당 90만 원의 인센티
브를 주는 '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' 이
도입된다.

지난 24일 '아시아경제' 에 따르면 한
국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고용보
험법·근로복지기본법·숙련기술장려법
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
을 심의·의결했다.

먼저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고령 근
로자 채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
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가 신설된
다.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제는 ●정년
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●정년 이후에
도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거나 ●정년
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는 사업주에
게 인건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
도다. 예산 246억 원이 투입되며 근로자
1인당 분기별 90만 원이 지원된다. 생산
가능인구는 줄고 고령 인구는 늘어나는
상황에서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늘
리기 위함이다.

기업들의 부담을 줄일 저출산 지원 대
책도 마련됐다. 근로자 출산휴가, 육아
휴직 등에 따른 대체 인력 채용 시 사업
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'출산육아기
대체인력 지원금' 범위가 확대된다. 그
동안 대체 인력을 '신규 채용' 하지 않았
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받지 못한 기업들

을 감안해 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했
다. 내년부터 임신 근로자가 근로시간을
단축할 때 채용한 대체 인력을 육아휴
직 기간 등에 계속 고용하더라도 중소기업
은 월 80만 원, 대기업은 월 30만 원의
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.

아울러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
상생 협력과 복지 격차 완화를 위해 '공
동근로 복지기금 제도' 를 활성화한다.
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업주가
참여해 공동근로 복지기금을 설립하고
출연할 경우 기존에는 출연금의 50% 범
위까지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100%까지
매칭 지원율을 높인다. 대기업, 지방자치
단체 등이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기
금에 출연할 경우에도 출연금의 100%
범위까지 매칭 지원한다.

정부 지원 금액과 기간은 확대된다. 기
존에는 공동기금에 참여한 사업주가 조
성한 기금에 대해 설립한 날부터 3년간
누적 2억 원 한도로 지원했으나, 앞으로
는 공동기금의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과
기간을 차등해 최대 5년간 누적 20억 원
한도로 지원한다.

한편 현재 지방기능경기대회의 참가
자격은 대회 개최일 기준으로 14세 이
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, 실력이
아닌 연령으로 대회 참가 자격을 제한하
는 것은 연령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라
고 판단해 연령 제한을 폐지했다.

2019년 한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 1.8초당 1명

2019년 한해 동안 대한민국을 방
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1,750만 명을
돌파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
로 보인다.

'사드' (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) 배
치에 따른 중국의 '한한령' (한류 제
한령)이 풀리며 중국인 관광객이 늘
어난데다 사드 위기 때 피한 관광객
다변화로 다른 나라 관광객도 늘어
난 이른바 '쌍끌이' 효과 덕분으로
풀어진다.

지난 24일 '서울신문' 에 따르면 한
국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2019년
한해 동안 한국을 찾은 외래 관광객
이 1,750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
고 추산 발표했다. 이는 외국인 관광
객이 1.8초마다 1명꼴로 한국을 방
문한 셈으로, 전체 관광수입은 25조
1,000억 원에 이른다.

생산 유발효과는 46조 원, 취업 유
발효과는 46만 명 정도라고 문체부
는 덧붙였다.

방한 외래 관광객은 2015년 1,323
만 명에서 2016년 1,724만 명으로
크게 늘었다. 그러나 사드 배치로 중
국과 마찰을 빚으며 2017년 1,334
만 명으로 급감했다. 2018년 1,535
만 명으로 다소 늘었고, 2019년에는
역대 최고였던 2016년을 넘어섰다.

문체부는 그동안 경과에 관해 "중
국 한한령 지속과 일본 경제보복 이
후 일본 관광객 감소 등 어려운 여
건 속에서 달성한 기록" 이라고 자
평했다.

문체부는 이와 관련, 2019년 '한중
문화관광장관회의' 를 두 차례 열어
양국 간 관광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
대학생을 대상으로 비자 간소화 제
도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. 지난 11
월까지 방한한 중국인은 551만 명
으로,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6.1% 증
가했다.

2016년에 46.8%를 차지했던 중
국인 관광객 비중은 2019년 34.3%
로 줄었다. 대신 일본인 관광객이
13.3%에서 18.8%로 5.5% 포인트
늘었고, 중국을 제외한 중화권 관광
객은 9.3%에서 12%로 2.7% 포인트
늘었다.

특히 미국인 관광객은 2019년 한
해 동안 총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
로 보인다. 100만 명 방문 국가에 미
국이 중국, 일본, 대만에 이어 네 번
째로 합류할 예정이다.

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"외래 관광
객 2,000만 명 시대를 넘어 관광으
로 자랑할 만한 나라를 만들도록 업
계와 함께 노력하겠다." 고 밝혔다.

34년을 오직 한 길

벨플라워/세리토스/다우니/플러튼/롱비치/놀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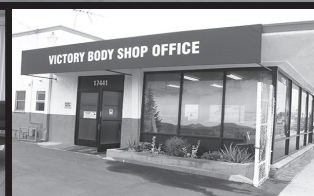
빅토리 바디샵

VICTORY BODY & SHOP

LIFETIME WARRANTY!

최대의 시설 / 만족한 서비스 / 저렴한 가격

- ✓ 보험 수리 전문
(일단, 전화 먼저 주세요!!)
- ✓ Lease Return
- ✓ 보험 없는 분들 오시면
부담없이 수리해 드립니다
- ✓ 전화 or 방문상담 환영
- ✓ Towing & Rent Car



(562)920-9745~6
 17441 Clark Ave. Bellflower, CA 90706
 Email: victoryautobody@gmail.com

